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찾은 인문학의 기회 - 『기계와의 경쟁』을 읽고 나서

서어서문학과 송 호 진

1. 들어가며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청년 백수'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시대다. 소위 스펙이라고 일컫는 우리의 객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학벌, 학점, 어학 능력, 각종 자격증까지 모두 다 갖춘 '청년 백수'가 태반이다. 대학을 다니며 그들이 쌓아 온 지식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단연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재'다. 따라서 크게 두 종류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공계 분야의 인재, 둘째는 뛰어난 경영학적 통찰력을 지닌 인재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인재 중에서 특히 이공계 인재에 대한 선호가 더 두드러진다. 2013년 하반기 삼성 그룹, 현대 자동차, SK 그룹, LG 그룹의 신입 사원 5명 중 4명이 이공계 출신 학생이었다.¹⁾ 그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한 CEO 아래에서 이공계 출신 직원이 일한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 현재 100대 기업의 CEO 중 이공계 전공자가 46.8%로 가장 많다고 한다.²⁾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에서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인 시대'가 왔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그러나 취업률은 여전히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인문계 출신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인문학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유에 대한 답을 『기계와의 경쟁』에서 찾고, 이에 기반을 두고 인문학도로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2. 진화하는 기술, 사라지는 일자리 『기계와의 경쟁』

①. 광범위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

소프트웨어로 대표 되는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칩 밀도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이 제시한 속도에 맞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발전 속도는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 초반부에서는 2배의 증가가 가져오는 변화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변화가 축적되어 있는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배의 증가가 가져오는 변화는 엄청날 것이다.

그동안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반복되는 정보 처리 업무만을 대체해왔으나 최근 그 대체 업무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간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 번역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정형화된 인간의 행동 패턴을 모사한 기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사회 여러 하위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며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1) 윤다혜, "신학용 "고교 문과생, 이과생보다 대입, 취업 어려워"", 메트로 신문, 2014년 3월 31일자.

2) "취업률, CEO 모두 "이공계 전공시대"", YTN 사이언스 투데이, 2014년 3월 14일 방송분.

②. 사라지는 일자리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이 증가 하는 만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술의 진보는 양날의 검이다. 디지털 기술은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과 그들이 속한 조직의 기량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재능이나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저숙련 근로자, 일반인,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1인당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간 가구 소득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간 정보 처리 업무, 커뮤니케이션 업무, 패턴 인식 업무 등 업무의 60%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왔으나, 육체적 노동이나 감정적 인지가 필요하여 기술 대체가 어려웠던 나머지 40%의 업무도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간 가구의 소득이 더욱 악화되어 생기는 경제적 부조화로 중간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관계로 맺어진 온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기계와의 협업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기계에 맞서 싸우는 '기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기계와의 협업'이다. 인간이 자신이 지닌 노동력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에 뒤따라 새로운 노동력을 창출해 내기 보다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고숙련 근로자이자 슈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과 '제도 개혁'이다. 디지털 기술은 '창의력'과 '직관'은 인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지지 않은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창의력과 직관에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인간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조는 이와 같은 기회로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정부 규제의 기준을 낮춰 창업을 촉진하고, 신규 사업을 위한 템플릿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는 등 개개인이 기업가 정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한국 사회에서의 기계와의 협업을 위한 자세

『기계와의 경쟁』은 흔히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생산성 증대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 처방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당위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낳는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2014년의 한국 사회에서 이같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①. 인문학으로 창의력과 직관 키우기

답은 이 책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창의력'과 '직관'을 교육을 통해 더욱 키워나가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핑크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요건으로 '하이

터치', '하이콘셉트'라는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이터치'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공감하고, 즐거움을 발견하고, 의사소통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하이콘셉트'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³⁾ 이는 인간 스스로가 혁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던 저자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니엘 핑크는 이와 같은 '하이터치'와 '하이콘셉트'를 갖추기 위해 타인을 비롯한 외부 세상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능력은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⁴⁾ 세계 각국의 역사를 배우며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소설을 읽으며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려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말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나가며 자기 자신과 그를 둘러싼 타인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법 또한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했을 것이다.

②. 인문학도로서 이공계적 소양 갖추기

이처럼 '창의력'과 '직관'을 기르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채용하는 사람은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이공계 학생'이지 '이공계적 소양을 지닌 인문계 학생'이 아니라는 데에서 인문학의 위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올 상반기 채용에서 현대 자동차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반면, 인문계 학생은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거의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계와의 경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기계와의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이 책에서 줄곧 말하듯 더 이상 일자리를 기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계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기술을 지닌 이공계 학생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통찰력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며 배운 역사와 문학, 철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체화해 온 인문계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이공계 학생만큼이나 그리고 때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적 소양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게 하며, 이공계적 소양은 이와 같은 생각을 기계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계와의 협업'을 비로소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채용 절차 다양화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SCSA(SAMSUNG Convergence Software Academy)라는 새로운 채용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인문계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운 후 비로소 현업에 배치된다. 인문학적인 통찰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삼성전자가 제시한 목표이다.

3) 공선표, 『생각 창조 기술』, 리더스북, 2008, 297면.

4) 박정자, 『이것은 Apple이 아니다』, 기파랑, 2012, 35면.

삼성전자의 SCSA와 같이 인문계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지원자를 채용하여 업무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기업에 최적화 된 슈퍼스타를 다량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 교육 과정에서의 문이과 간 경계 허물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명확히 나뉘는 문과와 이과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적성에 따라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과 학생이 이과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그렇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욱 '기계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문과는 이과 과목의, 이과는 문과 과목의 수업 시수를 늘려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역시 인문계와 이공계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 이수 학점 130 학점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공계 과목의 학점은 6학점에 지나지 않는다. 각 단과대학 별로 차이가 있으나 인문계 학생이 들어야 하는 이공계 학점의 수나 이공계 학생이 들어야 하는 인문계 학점의 수는 전공 이수 학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마저 지우지 않는 대학교가 태반이다. 교양 이수 학점의 절반 이상을 타 계열 수업 이수 학점으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시킨 학생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계열 학생의 인문계적 그리고 이공계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인문계 학생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생에게도 비교적 오랜 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프로그램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치며

『기계와의 경쟁』을 통해 기술의 진보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기술에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그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보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술과의 협업'이었고 협업을 위해서는 기술이 닿지 못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 고유의 영역은 '창의력'과 '직관'으로 이는 다니엘 핑크의 주장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며 강화시킬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공계의 공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계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기업이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고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두 가지 학문의 병행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시 시장'의 주축을 담당하는 '슈퍼스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공선표, 『생각 창조 기술』, 리더스북, 2008.

박정자, 『이것은 Apple이 아니다』, 기파랑, 2012.

2. 인터넷 자료

윤다혜, “신학용 “고교 문과생, 이과생보다 대입, 취업 어려워””, 메트로 신문, 2014년 3월 31일자.
“취업률, CEO 모두 “이공계 전공시대””, YTN 사이언스 투데이, 2014년 3월 14일 방송분.